Miwon Lecture

미원렉처

홍석현 Seok-Hyun HONG

새로운 한·중·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꿈

2015년 5월 28일(목)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

Miwon Lecture

강연 요약

“새로운 한·중·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꿈”

동북아지역이 세계경제의 중심이 된 새로운 한·중·일 시대가 도래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몽’을, 일본은 일본대로 ‘강한 일본’을 위한 플랜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 새 시대의 도래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실현가능한 청사진은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그 기획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나 일본의 꿈보다 더 멋지고 더 훌륭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유산도 능력도 기상도 지혜도 있다. 단지 그것들이 꿰어지지 않은 채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 강연에서 나는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매력국가’의 건설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상품과 자본, 사람이 국경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자유로이 활보하는 오늘날, 그 상품과 자본,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17세기 식민지에서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한 네덜란드가 좋은 본보기다. 종교대립의 광풍이 불던 당대 유럽에서 신생국 네덜란드는 관용과 자유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아 삶의 길을 찾아 헤매던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종교적 소수파였던 위그노와 유대인의 자본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다. 학문과 문화도 뒤따라 번성했다. 근대 유럽의 정신적 산파였던 데카르트, 스피노자, 존 로크 등은 네덜란드의 관용과 자유의 수혜자들이었다.

21세기 매력국가의 건설에 있어서 화두는 거대시장 중국이다. 그 중국 바로 옆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지리적 조건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날로 시장규모가 거대화해가는 중국을 기회로 삼으려는 상품과 자본, 사람들이 세계에는 수없이 많다. 하지만, 중국의 체제, 문화, 생활환경, 고급기술인력 등의 문제 때문에 중국 현지 진출에 따르는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많다는 점에 주목하여 우리의 활로를 찾자는 말이다. 바로 그들에게 중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인 대한민국이야말로 대중국 비즈니스의 전진기지로서 가장 매력적으로 느끼게 할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인재들과 자본이 대한민국에 모여들게 할 수만 있다면, 17세기 네덜란드의 성취를 21세기의 우리 것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허황된 환상은 아니다. 금융시장의 메카가 된 런던, 벤처창업의 요람이 된 실리콘 밸리, 글로벌 기업의 대아시아 전초기지가 된 싱가포르의 사례는 이미 잘 알려진 바다.

우선 불합리한 각종 규제들을 개혁하고 적절한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이 선결적이다. 그와 함께 대한민국에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본부, R&D 센터, 동북아 밸류 체인의 핵심상품 생산 및 물류 기지, 세계적 대학 및 병원 지부, 글로벌 로펌 및 회계법인 아시아본부 등이 대한민국에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다. 그에 따라 각종 사무실, 쇼핑몰, 오락·건강·예술문화시설, 주거시설 등도 필요해질 것이다. 매력국가 건설은 대한민국의 경제적 고민 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다.

더욱이 매력국가 건설은 대한민국을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국제적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매력국가로의 행보는 자유와 개방, 법치, 관용과 통합, 문화와 품격이 있는 삶이 가능한 문화국가일 때 온전히 가능하다. 세계의 인재들과 자본을 그런 문화국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협력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주도적 역할을 할 평화적 리더십 배양도 매력국가의 요청이다.

매력국가를 향한 꿈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한 길이다. 또한 동시에 국가적 품격을 높여 소프트 파워를 증진시키고 외국인들이 부러워할 국가를 만드는 길이며, 순조로운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로 가는 길이기도 하다. 광개토대왕의 개척자적 기상과 세종대왕의 애민사상, 문화주의와 과학주의 정신을 되살려 매력국가 건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시작한다면, 당면한 내외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Miwon Lecture

소개

홍석현 Seok-Hyun HONG

중앙일보·JTBC 회장

홍석현 회장은 중앙일보와 JTBC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신문협회(World Association of Newspapers, WAN) 회장(2002-05), 한국신문협회 회장(2003-05)을 역임했다.

미디어 관련 활동 이외에도 세계은행(World Bank) Economist(1977-83), 재무장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1983-85),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연구위원(1985-86), 주미 한국대사(2005)를 역임하면서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

현재 세계문화오픈(World Culture Open) 조직위원회 위원장, 삼극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회장, 아시아재단(Asia Foundation) 이사, 한국기원 총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이사, 베르그루엔 거버넌스 연구소 21세기 위원회(21st Century Council, Berggruen Institute on Governance) 멤버, 국제바둑연맹(The International Go Federation, IGF) 회장, 채텀하우스 고문(Panel of Senior Advisers, Chatham House)을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전자공학과 학사(1972), 미국 스탠포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 산업공학 석사(1978)와 경제학 박사(1980) 학위를 취득했다.

프로그램

5월 28일(목)	16:30~16:32	개회 및 강연자 소개	네오르네상스관 네오누리
	16:32~16:37	환영사	
	16:37~17:30	강연	
	17:30~18:30	대담 및 질의 응답	

T O W A R D S G L O B A L E M I N E N C E

Miwon Lecture

미원렉처Miwon Lecture는 경희대학교 설립자 故 조영식 박사의 호 '미원美源'을 따서 이름 지은 특별 강연입니다. 경희대는 '문화세계의 창조'를 창학정신으로, '학문과 평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미원렉처는 국내외 석학과 실천인을 연사로 초빙해, 인간과 세계, 문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갑니다.